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2. 28(목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미국, '백인국가' 건설을 목표로 테러모의한 해안경비대 대위 체포
 - 2.20 美 언론은 검찰이 백인 우월주의자를 자칭하며 민주당 의원 및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기 위해 다량의 무기를 수집한 해안경비대 대위 「크리스토퍼 폴 해슨(49)」을 '국내테러리스트'로 규정하고 체포했다고 보도

유럽

- 러시아, 무기제조업체의 '자살드론' 공개로 테러악용 우려
 - 2.23 露 칼라슈니코프社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방산전시회(IDEX 2019)에서 자살드론*(KUB-UAV)을 공개, 전문가들은 테러단체의 자살드론 악용을 우려
 - * 폭 1.2m, 폭발물 2.7Kg을 탑재하고 129Km/h 속도로 64Km 비행 가능
- EU·아랍 연맹, 첫 정상회의 '난민·테러문제' 합의는 무산
 - 2.24~25간 이집트에서 개최된 첫 유럽연합(EU)·아랍연맹(AL) 정상회의에서 유럽·중동·아프리카 난민 문제 및 유럽·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등 테러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, 상호간 입장차이로 인해 공동성명 채택은 무산

중 동

- 이라크, 자국 출신 ISIS포로 150명 이상 인수
 - 2.21 이라크 관계자는 시리아민주군(SDF)으로부터 자국 출신 ISIS포로 150명 이상을 인수받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(앞서 이라크 총리는 자국 출신 ISIS대원과 그 가족까지 모두 받아들일 것을 既언급)

아 · 태평양

- 아프간, 2018년 전쟁·테러로 민간인 3,800여명 사망
 - 2.24 AFP 통신은 유엔아프간지원단(UNAMA) 보고서를 인용해 “20년 가까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지난해에는 3,800여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어느 해보다 많은 민간인이 숨졌다”고 보도
 - * 사망자는 '17년 대비 11% 증가, 민간인 대상 자살폭탄테러 증가가 주요 요인
- 방글라데시, 여객기 납치기도 용의자 사살·승객전원 무사구조
 - 2.24 WP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두바이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권총을 소지한 용의자가 조종석에 들어가려는 등 납치를 기도하여 이륙 40여분만에 비상착륙하였으며, 용의자는 특공대와 대치 중 사살되고 승객 143명, 승무원 7명은 무사히 탈출하였다고 보도
- 인도, 파키스탄 內 ‘테러캠프’ 공습으로 인도-파키스탄 간 갈등 격화
 - 2.26 印 현지 언론은 자국 전투기 12대가 통제선을 넘어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캠프에 1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고 보도, 이에 파키스탄은 자위권 행사 경고
 - * 2.14 파키스탄 배후 주장 자살폭탄 테러 이후 印-파키스탄 긴장고조

아 프 리 카

- 미국, 소말리아 ‘알샤바브’ 근거지 공습으로 35명 사망 및 국경초소 파괴
 - 아프리카 미군사령부는 2.24 소말리아 內 ‘알샤바브’ 근거지를 4차례 공습하여 대원 35명을 사살하고, 국경초소*를 모두 파괴했다고 발표 (지난해 50회, 올해 22회 공습)
 - * 알샤바브가 소말리아에 이슬람 국가 건설을 지원할 목적으로 통행세 징수

소말리아 바이도아市 레스토랑 연쇄폭탄테러

- '16. 2. 28 소말리아 남서부의 도시 바이도아*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'알샤바브(AS)'에 의한 연쇄폭탄테러로 30명 사망, 61명 부상
 - * 소말리아 과도정부·의회가 위치한 핵심 도시로 '09~'12년 알샤바브가 한동안 점령하기도 했으나, 에티오피아 지원을 얻은 소말리아 정부군에 의해 회복
 - 테러범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레스토랑에 폭탄을 실은 차량을 돌진하여 폭탄테러를 감행하였고, 이어 자폭 테러범이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을 향해 폭탄을 터트려 다수 사상자가 발생
- 테러 직후 알샤바브는 성명을 통해 “배교자들이 드나드는 레스토랑을 겨냥해 폭발임무를 수행했다”며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- 「압디라시드 압둘라」 바이도아 시장은 “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했고, 희생자는 대부분 민간인이다”면서 “대대적인 검거작전을 통해 용의자를 체포했다”고 발표

< 알샤바브(AS) >

- (결성) '06년 소말리아 강경세력인 알이티하드 알이슬라미(AIAI)에서 분파된 조직으로 외세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극단주의 테러단체('10.4 UN 테러단체 지정)
- (활동지역) 소말리아(케도·베이주) 및 케냐 접경 '보니 삼림' 지역을 중심으로 군·경 대상 게릴라전 및 정부시설·요인에 폭탄테러
- (주요테러) '10.7 우간다 캄팔라에서 자폭테러(사상 76명), '13.9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 테러(사상 234명), '14.11 케냐 북부 만데라에서 버스 납치 및 승객 28명 살해, '15.7 소말리아 모가디슈 외국인 체류 호텔 대상 연쇄 폭탄테러(사상 40명), '17.10 모가디슈 호단지역 폭탄테러(사상 500여명) 등

